滅諦만이 궁극의 진리

〈멸제〉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㉖ 멸(滅)

"괴로움이 없어지는 한 가지 진실한 법(一苦滅諦)은 유위의 모양을 여의었으니, 유위의 모양을 여읜 것이라야 항상한 것이며, 항상한 것은 허망한 법이 아니며, 허망한 것이 아닌 법은 곧 진실한 것이며, 항상한 것이며,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없어지는 진실한 법(滅諦)만이 가장 으뜸가는 궁극적인 최후의 진리(第一義)가 됩니다."

사정세(四聖諦)가 곧 멸성제(滅聖諦)를 증득하기 위해 설해진 교리이다. 때문에 가장 으뜸가는 궁극적인 최후의 진리(第一義)를 멸성제(滅聖諦)라고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 대목에서 궁극적인 최후의 진리인 제일의제(第一義諦)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고 있다. 유위의 현상이 아닌 일체의 괴로움이 없어진 멸성제가 열반이요, 해탈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가 이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가지가지 법이 설해지는 것이다.

멸(滅)은 범어 비나사(vinasa)를 어원으로 한 말로 생(生) 또는 기(起)의 반대말이다. 그런데 이 '멸'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단멸(斷滅)과 찰나멸(刹那滅)의 두 가지로 이해한다. 단멸은 한 번 생겼다가 완전히 소멸하여 다시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하고, 찰나멸은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인연에 의하여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생멸현상(生滅現像)으로 볼 때의 생멸이다. 흔히 유위법(有爲法)이라 말한다. 유위법은 네 가지 과정을 거친다. 이를 생(生)·주(住)·이(異)·멸(滅)의 유위사상(有爲四相)이라 하는데 이 유위사상을 본문에 '유위의 모습'이라 한 것이다. 하나의 법이 생길 때 반드시 유위의 사상(四相)이 함께하는 것이다. 생겨날 때 이미 소멸된 것을 예약해 놓는다는 뜻이다. 또 멸(滅)은 무상을 뜻하는 말로 무상의 원리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말이다. 그러나 생멸의 멸(滅)은 멸성제(滅聖諦)의 '멸(滅)'이 아니고 멸도(滅度)의 멸이요, 적멸(寂滅)의 멸이다. 이 멸은 부처님의 열반을 뜻하는 것이다. 〈승만경〉의 제일의제(第一義諦)가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승(一乘)이나 불승(佛乘)과 같은 말로 권(權)을 모아 실(實)에 들어간(會權入實) 구경을 말하는 것이다.

〈법화경〉 사구게(四句偈)에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고요한 모습이다. 불자가 도를 행하고 나면 내세에 부처가 되리라(諸法從本來 常自寂滅相 佛子行道已 來世得作佛)"라고 하였다. 또 〈열반경〉 사구게(四句偈)에서도 이렇게 밝혔다. "모든 것은 무상하여 생겨났다 없어지는 법이라 생멸(生滅)이 없어지면 적멸이 즐거움이 된다.(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樂)"

두 경의 사구게가 모두 적멸의 멸을 경전의 핵심으로 본 것이다. 바로 불교의 핵심이 멸에 있으며, 멸이 열반이라는 것이다. 모든 번뇌의 불길이 꺼지고 생사를 반복하는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경지, 이것이 수행이 지향하는 최후의 목적지며 최고의 이상(理想)이라는 것이다. 초기 경전을 대표하는 〈수타니파타(Sutta-nipatta)〉에는 열반을 갈애와 욕망의 소멸, 집착의 소멸이라 하고 죽음이 없는 경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잡아함경〉에는 "열반이 무엇인가? 탐욕이 영원히 사라지고 진에도 영원히 사라지고 우치도 영원히 사라져 모든 번뇌가 영원히 사라진 경지를 열반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소승경전에서는 기존의 도식처럼 번뇌가 사라진 것을 열반이라고 강조하고 대승경론에서는 모든 상(相)이 없어진 것을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입능가경〉에서는 법을 보되 마음에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열반이라 했다.

이렇듯 열반은 불교의 경론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기도 했다. 중론(中論) 등에서는 "실상이 열반이다"하여 인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 곧 연기법의 공성(空性)을 열반이라 했다. 그런가 하면 〈열반경〉에는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고 열반이 그대로 생사다."라고 했다. 그리고 열반에는 상(常), 항(恒), 안(安), 청정(淸淨), 불로(不老), 불사(不死), 무구(無垢), 쾌락(快樂) 등 여덟 가지 맛이 있다 하였다. 이를 열반팔미(涅槃八味)라고 부른다. 이는 상(常), 낙(樂), 아(我), 정(淨)의 열반사덕(涅槃四德)을 늘여 말해 놓은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염불 수행이 곧 일행삼매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㊾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또 전신을 관하는 관상염불 수행법은 〈좌선삼매경〉에 경전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좌선삼매경〉에서 "만약 부처님 도를 구하려면 입선(入禪)할 때 먼저 마땅히 마음을 집중하여 부처님의 생신(生身)을 염해야 한다. 지·수·화·풍·산·나무·초목·천지 등 여러 가지 다른 법을 염하지 말고, 다만 부처님의 몸이 허공에 처한 것을 염하면 큰 바다가 깨끗할 때 금산왕(金山王)이 있어 상호가 원만하고 한량없는 청정한 광명을 내는 것과 같다.

이 허공의 청색 가운데 항상 부처님의 몸을 염하면 문득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눈앞에 계시게 된다. 만약 마음에 다른 반연이 일어나면 다시 거두어들여 머물게 하면 무량겁의 죄가 제거된다."라고 설한 가르침에 근거한 염불 수행법입니다.

용수보살이 주장하는 관상염불

대승불교를 완성한 인도의 용수보살(150~250)은 그의 저서인 〈십주비바사론〉에서 염(念)의 대상으로 '색신'과 '법신'과 '실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불의 종류에 있어서도 '색신염불', '법신염불', '실상염불', '십호염불(十號念佛)'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색신염불(色身念佛)

불자 여러분! 〈색신염불(色身念佛)〉은 '염불품'에서 "부처님의 색신은 32상 80종호로 장엄되어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모든 부처님의 상호를 취하여 억념하는 것이 색신염불이다."라고 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부처님의 32상 80종호의 거룩한 상호를 바라보며 칭명염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수반야경〉에서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일행삼매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한가한 곳에 처해 모든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고 하나의 모양도 취하지 말고, 마음을 한 부처님께 몰입하여 오로지 명호를 외우며, 부처님이 계신 곳을 따라 단정한 몸으로 바르게 향하여 능히 한 부처님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상속해야 한다. 그러면 이 생각하는 가운데 능히 과거와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을 친견할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한 부처님을 염하는 공덕이 무량하고 무변하기 때문이다."라고 '일행삼매(一行三昧)'의 염불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수반야경〉의 '일행삼매'에 대해서 용수보살은 〈대지도론〉을 통해 "법계의 일상(一相)에 몰입한 이것을 이름하여 일행삼매(一行三昧)라 한다."라고 염불 수행이 곧 일행삼매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신염불(法身念佛)

법신염불(法身念佛)은 '여래의 공덕'인 법신(法身)을 염하는 수행입니다. '사십불공법품' 제22에서 "보살은 이와 같이 32상 80종호로써 부처님의 몸을 염하고 나서 이제 마땅히 부처님의 모든 공덕의 법을 염해야 한다.

또 마땅히 40불공법으로써 부처님을 염하라. 모든 부처님의 법신은 다만 육신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중략〉 만약 사람이 이를 염하면 곧 환희를 얻는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은 색신이 아니고 법신이기 때문이라."라고 부처님의 색신이 곧 법신임을 설하고 있습니다.

경에서 설한 바와 같이 법신염불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색신을 염하고 난 후에 법신염불을 수행해야 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㉖ 고귀한 구함의 경 3

시작 없으니 번뇌 있을 수 없다

"수행승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를 뛰어넘어 '지각과 느낌의 소멸'에 들어 지혜로써 보아 번뇌가 소멸된 것을 안다. 수행승들이여, 그 수행승을 두고 '악마를 눈멀게 만들고, 악마의 눈을 뽑아, 악마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자, 세상에 대한 집착을 뛰어넘은 자'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그는 안심하여 가고, 안심하여 서고, 안심하여 앉고, 안심하여 눕는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는 악마의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을 '시작'이라 하고, 무엇을 '끝'이라고 말하는가?

'끝'이라는 말은 '시작이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시작과 끝이라는 사슬에 묶여 '무엇'과 '누구'를 놓치기 때문이다. 시작했다는 안도감과 시작했으니 끝도 날 것이라는 희망 아닌 희망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고, '무엇'과 '누구'에 대한 의심은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시작한다는 명제를 옳음으로 두고, 다음에 대한 의구심만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일이 끝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시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시작이라는 것이 옳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시작이 될 수 없다. 만약 시작이 옳음이 아니라면 그 시작이 옳지 못한데 진행을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따라서 시작이 옳음이 되면 바로 끝이 되어야 하고, 시작이 옳음이 되지 못하면 끝은 영원히 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시작을 물질로 본다면, 물질은 옳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해야 한다. 물질이 옳음이 없다면 시작이라는 것은 무의미해 진다. 물질은 항상 변한다. 고정성이 없다. 변하는 것은 실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실재하지 않는다면 물질에서 나타난 느낌과 지각이라는 세계는 악마가 꾸며놓은 덫에 불과한 것이지, 소멸시켜야 하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소멸시킬 필요 없이 저절로 소멸하니, 사라질 번뇌가 없음을 알게 된다. 알아야 하는 것은 느낌과 지각에서 일어난 장애가 아니라 그것을 느낌이라 말하고 지각이라고 말하는 오온에 대한 앎이었던 것이다. 오온이 무엇인지를 알면 시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끝도 없다는 것을 안다.

끝없는 시도와 좌절 속에서 시작에 대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는 수행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누구나 시작은 옳다고 당연히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은 존재하고,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것만 알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처럼 여긴다. 그것이 모든 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류다. 수행은 시작이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다. 끝을 아는 것이 아니다. 시작이 없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성실하게 시작해야 한다. 소 뒷걸음치다 쥐 잡듯 대충 하여서는 안 된다. 진심을 다하여야 한다. 그 진심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게 되어야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놓임이 생긴다.

시작했다는 것에서 놓임이 생길 때,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하지 않고 뛰어 넘어진다. 그 '하지 않는 뛰어넘음'이 악마의 눈을 뽑아, 눈을 멀게 하여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하지 않음'은 느낌이 생성될 수 없고 느낌이 생성될 수 없으므로 지각이 생성되지 못한다. 이러한 '하지 않는 앎'은, 가고 서고 앉고 눕는데 어떠한 장애와 번뇌도 생성할 수 없다. 만약 시작과 동시에 끝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느낌과 지각이라는 악마에 의해, 시작과 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목각 인형처럼 온몸이 묶여 악마의 손놀림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시작과 끝, 어디에서 찾는다는 것인가!
그저 악마의 느낌과 지각일 뿐인데
느낌이 일어날 때 그것이 두 번째 생각인 줄 알면
첫 번째 생각 어디에도 일어난 적 없었네.
악마는 느낌과 동시에 동일시에 집중할 뿐
느낌에 대한 시비심 일으킴 없지만,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퍼덕거려 피가 나는 것이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19년간 공장일 전전하다
뇌출혈로 죽음 문턱

미얀마 출신 양묘나잉씨 가족 부양 위해 한국행 택해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병원비 4000만원 '막막'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